

존재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고적한 행보

이재연 첫 시집 '쓸쓸함이 아직도 신비로웠다' 펴내

“인간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이상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의 간극이 큰 만큼 고민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2012년 오장환 신인문학상 당선자인 장흥 출신 이재연(54) 시인이 첫 시집 '쓸쓸함이 아직도 신비로웠다'(실천문학)를 펴냈다. 이 시인은 지난해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제정한 운동주서시문학상 홍보대사를 맡아 운동주 시 정신을 선양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리시대는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운동주 시인은 존재에 대한 성찰, 시대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나라 사랑과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지요.”

이 시인은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에 유독 강조를 했다. 이번 시집에는 존재의 근원과 비유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독특한 시각이 투영돼 있다. 모두 42편이 실린 작품집은 첫 시집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만만찮은 내공이 엿보인다.

이 시인은 “습작기간을 포함해 등단하기까지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길었다”며 “시를 쓴다는 것은 결코 허투루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언제 첫 시집이 나오느냐 재근을 많이 했지만 그런 얘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며 “지금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출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대개의 경우 첫 시집을 발간할 때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거나, 과장된 수사법을 구사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발효와 되새김이라는 숙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 시인은 착상에서부터 숙성에 이르는 충분한 시간을 거쳐 “새로운 세계의 태동”을 견인했다.



이재연 시인



운동주 서시문학상 홍보대사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

운동주 시인 통해 '참다운 삶' 성찰

“여러 해 동안 숙성시켜 갈무리한 고농도의 시편”이라는 홍일표 시인의 단평처럼, 이 시인의 첫 시집은 고유의 색깔과 만만찮은 내공을 담고 있다. 시의 행간을 따라가다 보면 존재의 쓸쓸함과 현실의 가혹함이 겹쳐진다.

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존재’와 ‘현실’을 키워드로 작품의 지평을 확장했다. “존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갇힌 현실적 존재가 보였어요. 그와 달리 현실적 존재에 대해 천착하다보면 각 개인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적 존재가 보였어요.”

“환상과 지폐에서 깨어날 때마다 아파트만 무수히 태어났다./ 우리들은 무성한 아파트를 반성했지만 반성뿐만 결론에 도달하곤 했다./ 어떤 결론은 보기에도 민망했고 입 속에서도 서걱거렸다./ 저녁이 되

어 사람의 그림자가 바둑에 수북이 떨어지자./ 우리들은 우리 속이 쓸쓸함을 꺼내/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다.”(“쓸쓸함이 아직도 신비로웠다” 중에서)

표제시 ‘쓸쓸함이 아직도 신비로웠다’ 또한 근원적 존재와 현실적 존재에서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애저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홍일표 시인의 표현처럼 “시대에 가장 밀착해서 시대에서 가장 먼 곳을 지향하는 노마드의 고적한 행보”는 깊이있는 울림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시인은 현실적 존재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구조나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시가 감성적 어조나 표피적 진단을 넘어 단단하고 무게 있는 ‘서정의 영토’로 다가오는 이유다.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히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면서 노트에 2~3분 분량의 시를 썼는데 친구가 보고는 ‘너는 시인이 될 운명을 타고 난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계기가 돼 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이 시인은 앞으로도 천천히, 그러나 자신만의 개성적인 작품을 쓰겠다고 강조한다. 수사나 목소리, 주제의식 등 특정 스타일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까지 나만의 색깔과 지향을 보여주는 시를 쓰겠다는 것이다.

해설을 쓴 고봉준 평론가는 “내면에서 상연되는 심리적·감각적 드라마에 초점을 두는 최근의 시적 경향과 달리, 그녀의 시는 희망이 사라져 버린, 모든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쓸쓸함을 강제하는 세계의 부조리를 향해 언어의 날을 세우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이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2년 실천문학사에서 주관하는 제1회 오장환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원뿔형 토기

발굴 흙 속에서 발견한 역사의 조각들

국립광주박물관 7월 9일까지
2015~2016 호남·제주 고고학 성과 전시

“발굴(發掘)은 땅속 등에 묻혀있는 것을 파낸다는 뜻으로 고고학에서는 고고학자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2015~2016년 호남·제주 지역에서는 400건 이상 발굴 조사가 이뤄졌다. 구석기·청동기·철기 등을 비롯해 무덤, 산성 등 다양한 과거 잔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지난 2년 간 발굴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3일부터 7월 9일까지 기획특별전 ‘흙 속에서 발견한 역사의 조각들-2015~2016 호남·제주 고고학의 성과’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 출품되는 유물 200여점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을 알릴 수 있는 자리다.

전시는 총 3부로 나뉘며,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 우리네 생활상을 소개한다.

1부는 ‘선사시대-기록 이전의 과거’라는 주제로 구석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까지 살펴본다. 검파형동기, 거울모양동기, 화천(貨泉·중국 신나라때 화폐) 등 최근 조사된 유물은 국내에서 매우 드문 것으로 학계 관심을 모은 사례다. 또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사례가 적은 청동기시대 집자리 발굴 성과를 한자리에 모았고, 제주 고산리 유적의 대표 유물도 만날 수 있다.

2부 ‘역사시대-만들고 사용하다’에서는 광주



중국 신나라 화폐 '화천'

하남3지구 유적부터 나주 읍성까지 마을에서 읍성으로 취락 공간이 변하는 과정을 선보인다. 또 무덤·산성·수리시설 등에서 확인되는 고대 토목기술을 알 수 있다. 고창 용례리·진안 도토리·부안 유천리 등 청자가마 조사 성과를 통해 호남지역 청자 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부 ‘역사시대-내세와 안녕을 기원하다’에서는 무덤과 사찰 조사 성과를 다룬다. 화순 천덕리 회덕고분, 장수 노하리 가야고분군 등 조사 성과를 통해 삼국시대 무덤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외래문화 영향과 의미를 다룬다. 또 남원 실상사, 보성 개흥사지, 강진 용혈암지 등 사찰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 호남지역 불교문화 발전과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5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삼국시대 토기

문화예술기획 현장형 학교 '문화기획 로드 스피라'

5월~11월 여수 등 전남 일대에서 진행

전남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기획을 배우는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5월부터 11월까지 여수 등 전남 일대에서 진행된다.

기획서 중심의 아카데미형 양성과정인 현장형 학교를 콘셉트로 한 '문화기획 로드 스피라'는 전남의 생태, 역사, 문화의 현장 곳곳을 발로 걸으면서 문화예술 기획을 배우는 현장형 학교다.

기본과정은 골목기획 로드 등 3박4일간 진행된다. '골목기획 로드'는 순천과 여수 도심 골목으로 떠나며, 골목 커뮤니티 아트, 아카이빙 등의 방식으로 배우게 된다. '오일장기획 로드'는 해남의 남정장, 황산장, 우수영장 등을 찾아가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예술시장으로서 오일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섬마을기획 로드'는 고흥 연흥도, 여수 금오도, 남도로 떠나며 문화관광콘텐츠 및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본다. 모집 인원 45명.

심화과정 '문화생활 레지던시'는 '135만원의 삶을 위한 기획'을 주제로 마을의 '장소 특성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한다. 모집 인원 20명. 북구문화의집 홈페이지(www.munhwahouse.or.kr) 참조. 문의 062-268-1420, 269-1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숙희 영암 삼하고 교사

제6회 김영랑 전국시낭송경연대회 대상



시낭송가인 김숙희(사진) 영암 삼하고 교사(영어가 제6회 김영랑 전국시낭송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 교사는 제14회 영광문학제 및 세계 모란축제 기간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김영랑의 시 '오월'이라는 작품을 낭송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 교사는 지난해 김소월 전국백일장 대회 준왕관과 서울 포애편시별 전국시낭송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전국대회 5관왕을 차지, 시낭송계 스타로 발돋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김소월 전국백일장 산문 부문 준왕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도 데뷔했다.

김 교사는 교내 시낭송 행사를 기획 진행해왔으며 시낭송 동아리를 조직해 제자들을 키우고 있다. 이밖에 시낭송 발표회, 인문학 강좌,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학 기행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김 교사는 “시낭송뿐 아니라 관련 분야가 낭송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도 초석을 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봉주 前 국회의원

전여옥 작가

남희석 방송인

진중권 교수

안형환 前 국회의원

외부자들

OUTSIDER

매주 화요일 밤 11시

CHANNEL